



# 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분지 편집장)

## 월간양계 창간 당시 30년전 비해 양계업 외형상 2.9배 성장

월간양계가 창간될 당시를 좀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사육수수 면에서 현재 2.9배가 넘게 양계업이 성장을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인구가 증가하여 자연적으로 양계 산물의 소비량도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시설이 3배 가까이 확장된 점은 고성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68년 6월에 우리나라의 닭 사육수는 3천만수였다. 30년이 경과한 금년 3월 기준 8천9백만수를 기록하여 약 3배에 가까운 생산기반이 확충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료, 약품,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하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육농가는 1,377,946호에서 161,276호로 격감하여 8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닭의 생산능력이 있어서도 산란계의 평균 산란수는 125개, 육계 사료요구율은 3.0이었는데 현재는 281개와 1.98로 향상되었다. 말그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셈이다.

현재 닭 질병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30년 전에 주로 발생된 질병은 백혈병이 단연 많았고, 다음은 복막염, 뇨산침착증, 난파열, 탈항 순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현대의 가금티푸스, 뉴캐슬, 추백리, ILT, IB 등과는 참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업계 현안 문제로는 민간 종계장 육성, 부실

부화장 정비, 계분처리, 유통개선, 안정기금 설치, 양계조합 특수조합으로 인정, 외국 투자업체 평가, 양계진흥법 제정 등이 부각되어 다루어졌다. 이중 몇 개 항목은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양계업의 병폐가 무엇이었나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창간호에 게재되었던 기사 내용을 훑어보았다. 양계업이 생산기반면에서 2.9배의 성장을 이룩한 그대로 육종이나 사양관리에 있어서는 2.3배의 향상을 보여 어느 정도 균형있게 발전을 추구해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유통, 제도개선, 종계관리 등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면을 본다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월간양계가 해야 할 일은 양계인들이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양계인들이 흔들림 없이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편집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사명감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양계인들의 관심이 커져야 하리라고 본다.

##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21세기 환경친화형 축산업 구축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 개최되는 축산박람회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관에서 막이 오른다.

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국가 경제의 고도성장 덕분에 우선 양적으로 급성장을 한 것은 사실

이다. 그 이면에는 질적 성장이 함께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산업적 차원에서의 불안 요인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농가당 계란생산 규모는 10여배 가까이 커진 곳이 많으나 산물을 출하하는 방식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거나, 고밀도 사육에 적합한 관리 방식이 재래식 개방계사와 크게 변한 것이 없다거나, 투자 규모에 걸맞는 합리적 경영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기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개선점이 나타나곤 한다.

이제 우리는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될 21세기를 향하여 나가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합리적 경영, 체계적인 유통, 효율적인 사양관리는 물론 투자와 이익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축산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치 경제에 익숙한 탓인지 어려움만 닥치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21세기에는 반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찌꺼기 응석받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우선 겪는 것이 환경변화라 한다. 적응하기에 따라 성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축산업도 변화가 시작될 때 업계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판도는 매우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축산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바쁜 시간을 내서 참관하여 축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을 시대가 원하고 있는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박람회는 축산인은 물론 소비자, 생산재 공급자, 학계, 정부까지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여 마련한 행사이다. 각자의 시각에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사업성을 검토한 하나의 작품들이 총망라 되어 출품되고 참여하게 된다.

메모지는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한가지씩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하루 종일 축산물 판매코너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추이를 살펴보다도 우리 축산인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1세기에 누가 더 계획했던 일을 성공하느냐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축산박람회를 참관하면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계란·닭고기 소비가 달라진다 소비자 마음 바로 알자

지금까지의 소비흐름을 분석해 본다면 계란은 명절전, 봄·가을 행락과 개학 등 몇가지 요인을 놓고 수요기와 비수기를 생각해 왔다. 닭고기는 연말연시, 삼복에다가 관광철, 모내기 시기에 소비가 좋았고 그 외에는 비수기로 꼽아왔다.

겨우 외식산업이 커지면서 후라이드치킨이 연중 소비를 주도하고 있으나 구워먹는 육류 시장에 도전장을 낼 만한 상품개발이 뒤따르지 못하여 오리나 기타 가금류의 도전도 거세지만, 자칫 여름 삼복기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삼계탕마저 삼겹살에 밀려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걱정이 된다.

계란은 주로 식품제조시 보조제로 부각이 되어 독자적인 요리개발이 없는한 획기적인 수요

창출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새천년의 먹거리 시장은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 인구가 머지 않아 100억명에 달해 식량산업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미래를 예측하는 사회학자들은 물과 경작지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곳곳의 싸움이 증가된다는 가설을 보이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편리식품이, 후진국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식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해 가겠지만 우리와 같은 토지집약적인 농업생산국은 수입산물로 인한 피해의식이 강해 도전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전업을 고려하기 때문에, 동업자간의 결속력도 없고, 기반시설 개선에도 소극적이다.

이같은 점들이 양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마련이다.

관정을 넓히는데 투자하지 않고 물만 뽑아올리면 언젠가는 고갈이 나게 마련이다. 계란의 생산자 주도 고시제도가 대략 30여년간을 채투자 없이 뽑아만 썼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흐름이 바뀐 현대에 와서는 현행법상 모순이 되어 막을 내려야 하는 것과 같이 양계업에 투자가 끊기면 우리나라 목화업과 같은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그렇다고 섬유업이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계란과 닭고기도 우리나라에서 양계업이 사라진다고 해서 식탁에서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란과 닭고기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공적으로 투입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시급한 것은 소비자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양계**